

칼럼

장기채 주필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치매는 '천형(天刑)' 과도 같은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도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안보다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를 제대로 돌볼만한 경제적 여유조차 없다면 더욱 심각해진다.

환자를 간병하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환자와 동반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에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때문일 것이다.

환자가 죽어 가는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환자급증과 함께 유사사건이 속출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치매환자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치매환자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가족이란 말도 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게 하지말자. 가벼운 운동 반복해서 시키고 야외활동 도와주자. 환자와 안정 피하고 사진첩 보여주며 추억 얘기 들려주자" 이

말은 노인 전문병원 의사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치매 간병 가이드다.

치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다.

이 치매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정도가 치매라고 한다. 그 10%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약 5만 명 정도가 현재 치매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형편이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관리가 힘들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21만6656명이던 치매환자가 지난해 40만5475명으로 87.2%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다.

집이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를

더한 실제 환자는 훨씬 많다고 한다. 여자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여자 노인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해서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앙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자살증가율이 세계 1위다.

행복지수는 26위란다.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스트레스가 자살로 또는 치매로 미래에 대한 것이 출산률로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치매 대책을 긍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70세 이상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40대 미만과 40~50대도 6.5~4.3% 늘어난 연령층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시간과 장소에 혼돈이 생기는 증상

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예방 3·3·3 수칙'을 내놨다. 3권(勸·즐길 것), 3금(禁·참을 것), 3행(行·행길 것)으로 돼있다.

3권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걷기, 책·신문 읽고 글쓰기, 생선·채소 골고루 먹기를 말한다. 3금은 술·담배 안하기, 머리 다치지 않기, 3행은 만성병 정기검진, 가족·친구와 연락하기, 치매 조기검진을 실천하지는 뜻이다.

서울 백병원 내과 권인순(노인의학) 교수는 "뇌를 써서 '뇌 스트레스'를 올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없어진다"며 "많이 걷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권한다.

어쨌든 치매환자는 기억은 잃어지지만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있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나 행동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전문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치매가족이 치매환자에 대한 궁금 점과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고 즉시 답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치매는 치매환자의 가족(간병인)이나 전문 의료진, 사회복지관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社 說

아동학대 관리체계 강화해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체계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에 따르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계부 A씨는 2017년 이미 B(5·사망) 군 등 두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같은 해 7월 16일 두 의붓아들에 대해 1년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리고 A씨에게는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제한 결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6일 두 의붓아들이 학대 피해를 당한 뒤 생활한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을 했다.

보육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

정법원에 A씨의 접근금지 위반 내용을 알렸으나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달가량 뒤 재차 A씨가 찾아오자 보육원 측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안된다"는 구두 경고만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1년의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A씨가 B군 등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찾아 집으로 데려간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담당 지자체도 보호명령 기간이 끝난 뒤 법률상 정해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B군 등의 보육원 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살 아이가 계부에게서 맞아 사망하기까지 법원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공범인지도 모른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허점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생각정리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내 가정 내 일터서 실천

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내 가정, 내 일터에서는 발생할 일이 없다고 하는 관계자

가 많은데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진부한 표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나 깨나 불조심'을 실천해야 한다.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는 사용한 후 반

드시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 취침전이나 외출 시에는 화기 및 전기,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매일 퇴근시간 전후 불조심 방송도 필요하고 담뱃불이나 풍초를 아무 곳이나 버려선 안 되며 난로 주위에는 비상시를 대비 소화기, 모래 등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자체 방화 순찰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최초 화재발견자는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소화기, 모래, 육내소화 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에 임해야 한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